

# 문화재연구 국제교류현황과 과제 : 일본

김 재 현\*

## 목 차

- |              |              |
|--------------|--------------|
| I. 일본의 문화재연구 | IV. 한국국제교류재단 |
| II. 학술연구회 활동 | V. 앞으로의 과제   |
| III. 한일교류    |              |

## I. 일본의 문화재연구

일본에서 고고문화재와 관련된 국립박물관으로는 東京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京都국립박물관, 奈良국립박물관,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국립민족학박물관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아시아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九州국립박물관(가칭)도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연구소는 2개소로 東京국립문화재연구소, 奈良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어 고고학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 각 현과 시, 촌(町)에 자료관,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방의 고고학 조사는 이들 현, 시, 촌의 교육위원회 소속 문화재(문화·문화재조사·매장문화재 등)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매장문화재센타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며 구제발굴이 주된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발굴과 관련한 조사상의 협력 또는 기술지도를 위해 언제든지 각 대학에서 전문적인 지도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골의 조사분석, 朱의 분석, 銅의 산지분석, DNA 분석과 같은 세부적 분야의 협조는 물론, 발굴조사 제반에 관련한 협조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발굴조사는 각 현과 시·촌의 발전과 관련되는 만큼 반드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전문가 이외, 일반인도 자유롭게 현장견학과 유물견학,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게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문화재보호단체가 결성되어 지역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발굴

\* 일본 구주대학대학원 비교사회문화연구과 조수



현장의 일반 작업원으로서 발굴조사에도 참가하여 발굴이 정당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견제하는 적극성도 보이고 있다.

문화재를 위한 시설물에서도 각 지방의 자료관·전시관·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설치되어졌던 시설들이 (유물과의) 만남 또는 접촉을 위한 곳이라는 뜻의 「ふれあい(후레아이)館」이라는 용어를 권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박물관이나 전시관과 같은 용어들이 가지는 정적이고 조금은 딱딱한 선입관을 배제시키고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견학하고 휴식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용자가 유물에 직접 손을 대어보고 싶어하는 충동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발굴 체험을 맛보게 하기 위한 실습코너와 유물복원코너를 두고 있으며 고대 생활구의 복사품을 사용하여 당시의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코너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사시대의 움집을 복원한 경우에 있어서는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직접 움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체험관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발굴유물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일반인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작업실 벽을 유리로 한 곳들이 늘고 있다. 이것은 박물관이 보다 일반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어서, 즉 공공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다만 일반인의 흥미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목적만은 아니어서, 전문적인 학예원들에 의해 정리되어진 전시도 충실히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ふれあい館」이라는 용어 그 자체에서 유물차용을 거절한 예가 한국 모박물관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 II. 학술연구회 활동

한일간에 국제교류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고고학분야에서도 활발한 국제교류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이러한 국제교류의 심도를 더하기 위해 한국 고고학을 연구하는 모임이 전국에 일찍부터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東京을 중심으로하는 東北アジア考古學研究會, 京都의 朝鮮古代研究會, 大阪의 朝鮮考古學研究會, 福岡의 東アジア考古學談話會 등은 정기적인 한국관계 연구회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소속되는 회원들도 각 대학의 고고학연구자를 비롯하여 市縣의 고고학관계자·일선 고등학교 역사담당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들 연구회는 총괄하여 연 2회의 정기적인 전체모임도 실시하여 상호 연구결과를 교환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北九州市의 古文化研究會에서는 부정기적이지만 한국의 최근 발굴성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잡지 『古文化談叢』을 통하여 한국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한일의 정기적인 연구회로서는 먼저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합동고고학회』를 들



수 있다. 이 학회는 1994년 7월 일본 福岡市博物館에서 제1회 합동고고학발표회를 가졌는데 村上恭通 「야요이시대 철기문화의 특징」과 송계현 「삼한철기변화의 단계」의 연구발표와 함께 한일관심의 발굴 조사보고 6예가 이루어졌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 연구회는 제2회 발표회를 1996년 7월 계명대학교에서 「4·5세기의 한일고고학」이라는 공동테마를 설정하여, 이희준 「낙동강이남지방 4·5세기고분자료의 정형성과 그 해석」, 田中良之 「매장인골에 의한 한일고분시대의 비교」, 김두철 「한국과 일본의 마구」, 宇野愼敏 「일본출토 장신구로 본 한일교류」의 연구발표와 함께 4예의 유적조사 발표를 가졌다. 1998년 7월은 일본 熊本市에서 「환호집락과 농경사회의 형성」이라는 테마하에 제3회 합동발표회를 가져, 徐光輝 「중국신석기시대의 환호집락」, 이성주 「한국의 환호취락」, 武末純一 「일본의 환구집락」, 이청규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뉴경과 그 부장묘」, 片岡宏二 「일본출토 전·중기 무문토기」의 연구발표와 함께 6예의 유적조사 발표회를 가졌다. 이 연구회는 실제상 한국 영남과 일본 九州에만 한정된 연구회가 아닌 것은 그 회원들의 구성에서도 잘 알 수 있다. 九州考古學會만 하더라도 1930년 조직된 이래, 회원수 만도 700명에 달하고 있으며 회원구성도 전국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 학술교류라 하여도 손색이 없다 하겠다. 이 합동연구회를 통하여 이제까지 한일간에 잘 이해되지 못하던 편년문제나 유적·유물의 이해가 해소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 발전으로 받아들여지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합동고고학회는 한국과 일본,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고 있으며 오는 2000년에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외의 공동연구회로서는 1995년 8월부터 시작된 『한일신석기시대연구교류회』가 있다. 이 교류회는 한국신석기시대연구회와 九州縄文研究會의 공동연구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대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규모는 영남·구주 합동고고학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동의 시대 연구와 정보교환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회이다. 제1회 교류회는 한일교류의 접점인 長崎縣 對馬에서 이루어졌다. 발표는 신종환 「금강식토기에 대한 소고」, 최종택 「미사리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변천」, 新東晃一 「또하나의 조몽문화－남큐슈의 초기조몽문화의 특색」, 池田朋生 「도도로기C식·도도로기D식 토기의 재검토」, 田島龍太 「사가현 가라쓰시 사지소재의 도쿠조다니유적에 대하여」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제2회 연구회는 1997년 한국 제주도에서 이루어져, 고재원 「제주도 고산리유적 출토 타제석기의 형태적 분석」, 송은숙 「호남 내륙지역 신석기문화의 특징」, 하인수 「영선동식토기 소고」, 水ノ江和同 「북부큐슈의 조몽시대 초창기~조기전반기의 양상」, 正林護 외 「나가사기현 고도열도 출토의 한국신석기시대 적색안과도채토기에 대하여」의 발표를 가졌다. 금년 1999년 일본 指宿市에서는 제3회 대회를 가져, 下山覺 「남부큐슈의 화산재해와 조몽유적」, 西中川駿 「큐슈 조몽유적 출토의 동물유체」, 山崎純男 「동아시아 신석기시대의 擦切 기법」, 임효재



「최근 한국 신석기 유적 발굴성과」, 田中聰一 「한반도·동남부의 신석기시대 토기」, 이동주 「한국 즐목문토기의 발생과 전개에 대하여」, 하인수 「부산시 동삼동패총의 조사」에 대한 발표를 가졌다. 이 교류회도 역시 격년 주기로 한일을 왕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일 신석기연구자들이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회로서는 『왜성심포지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왜성연구회가 올 1999년 5월 개최한 심포지엄으로 한국의 왜성을 연구해 오던 각 연구자들이 모여 이제까지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대회였다. 발표는 中井均 「왜성—그 역사와 특징—」, 福島克彦 「왜성연구의 문제점」, 高田徹 「왜성의 구조—그 구조와 평가를 중심으로—」, 八卷孝夫 「잃어버린 왜성의 구조에 대하여」, 木島孝之 「왜성과 국내성곽의 구조에서 본 근세 초두기 대명권력의 양상」, 黒田慶一 외 「왜성의 유물(기와·도자기)」, 堀口健貳 외 「왜성의 구조(석단)」, 堀苑孝志 「신흥군사도시·肥前名護屋」, 藤本正行 「왜성의 무구와 전투」, 나동욱 「한국 부산지역의 왜성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있었다. 이 심포지엄은 그 동안 한국 왜성을 연구해 오던 倭城址研究會를 중심으로 城郭談話會·織豊期城郭研究會 등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것으로 왜성의 역사적 배경은 물론, 왜성연구사, 왜성의 축조법과 특징, 일본 국내성과의 비교, 왜성의 출토유물, 임진왜란시의 양국 무기 등에 대한 연구와 왜성 현황에 대한 보고 등이 있었다. 이어서 대회기간 중에는 왜성유적보존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왜성의 보존과 주변경관 보전을 바라는 요망서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송부하기도 하였다(讀賣新聞 1999.6.2일자). 그러나 요망서에도 밝힌 것처럼 한일 양국민의 우호를 위해 미래에 전해야 할 기념물임을 진정으로 인식한다면 일부 몰상식한 발표자의 의견에서처럼 이들 왜성이 도시를 지향하여 만들어 졌다던가, 왜성축조에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은 왜군을 유엔평화유지군 쪽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됨을 분명히 하고 싶다. 심포지엄은 코멘트에 참가한 심봉근선생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왜성은 당시 戰場의 상황에 대응하여 축조된 것이어서 일본의 전통적 성축조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한국 읍성과 근접해 위치하는 것은 석재조달의 편의와 함께 읍성을 파괴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결과로 본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한국 남부지방의 조선시대 성 약300기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34기(11%)인데 대해 오히려 왜성은 28기 중 12기(43%)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말 왜성이 역사적 물증의 유적임을 양국이 함께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역사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여하튼 한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일 비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능한 것은 위에서도 밝힌 것처럼 여러분야의 한국연구회가 그 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



로 한국에서도 앞으로 특히 인문분야에서 적극적인 일본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쓰시마 연구는 고무적인 전진이라고 생각된다.

### III. 한일교류

고대부터의 한일 국제교류를 알리기 위한 전시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박물관으로서 佐賀縣立 名護屋城博物館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의 설립취지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반성위에서 名護屋城이 일본과 한반도의 교류 및 우호 추진거점이 될 것을 지향하여,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한일 교류사를 상설 전시하고 있다. 또한 금년 9월에서 11월간에는 「왜국과 가야 -고대 바다를 넘어서-」라는 제목하의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여 한일 고대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곳은 국제교류원 자격으로 근무하는 한국인도 있어서 한국어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국제교류로는 부여와 太宰府市를 들 수 있다. 올해로 자매도시 체결 2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두 곳은 고대 역사를 배경으로 한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쓰시마에서 행해지는 「아리랑제」도 매년 8월초에 부산영도구와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년 福岡市에서는 매년 9월을 「아시아의 달」로 정하여 아시아 각국이 참가하는 문화행사도 펼쳐지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산업의 홍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TV선전에 출연한 것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까지 주로 서울·경주가 중심이던 관광코스도 다양화되어 고대 가야국의 탐방, 임진왜란·정유재란의 역사탐방이라는 제목하에 김해, 한산도, 진주, 울산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 IV. 한국국제교류재단

九州大學에서는 고서적조사의 일환으로 98년 여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일본어 고서 3천점과 일본 江戸시대 등의 和本藏書 약 3만본을 확인하였다(讀賣新聞 98.9.14일자).

또한 최근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100만 달러를 지원받아 대학내에 『한국학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관련된 제반 연구계획들이 속속 세워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한 기초작업으로서는 대학원·대학생 15명을 선발하여 이화여대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대학원생들의 한국관련연구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V. 앞으로의 과제

한일 교류는 문화차원에서, 학술차원에서, 민간차원에서 등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일 교류는 급속이라고 할만큼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고 있어 일부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그 동안의 교류가 너무나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싶다. 지금 한국이 모색하여야 할 문제는 오히려 한일 교류의 대등한 발전을 위해서 基礎的 바탕이 되는 학술적 연구를 어떻게 하면 견고히 할 것인가에 더 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 일본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육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